

특특뉴스

소비 위축에도 와인판매량 증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 11~29일 기간에 신세계백화점의 와인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이 기간 와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면서 집에서 '홀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신세계는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백화점과 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의 실적이 급락하는 가운데 와인 판매량만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이례적이다.

실제 2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세계백화점의 전체 매출은 15.8% 감소했다.

여성 의류는 37%, 남성 의류는 22.7%, 아웃도어 상품은 17.4% 감소했지만 와인 매출은 명품(3.3%)보다 더 많이 뛰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와인하우스에서 15일까지 직매입 와인을 최대 40% 할인한다.

그래픽 경제



대기업간 임금 양극화 심화

국내 대기업 연봉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 격차가 커지면서 대기업 직원 사이에서도 임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300개 기업의 1인 평균 연봉은 2014년 7,050만원에서 2018년 8,070만원으로 14.4%(1,016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품귀 현상...식품·위생업계 '발동동'

비축분 바닥...공장가동 어려움 호소

해외 직배송 구입 비용·시간 이중고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식품·위생업계가 애를 태우고 있다.

15일 지방중기청과 지역 식품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식품·위생 업계의 비축분이 바닥을 보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소재 한 식품 제조 업체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의 경우 생산라인 직원들이 매달 소비하는 마스크가 600여 장에 달하는데 마스크 수급난에 200여 장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식품가공업 특성상 식품안전관리인

증(HACCP·해썹) 유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본 조건조차 갖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다수 식품제조업체는 전남도내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어 공적마스크 판매처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근로자들의 마스크 구입과 회사 차원의 마스크 수급이 여의치 않다.

나주지역 식품업체 관계자는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업체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받을 동

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한대로면 마스크를 구입해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워 해외 직배송을 통해 주문했다"며 "가격이 너무 비싸 어려움은 있지만, 공장을 가동하려면 꼭 필요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생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마스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산업 현장에서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

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해외 배송을 통해 마스크를 받는데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국내 공적마스크보다 비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난으로 인해 정부가 일괄 관리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면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 중소기업체 등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 최근 지역본부 1층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 직원과 고객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 떡을 나누는 행사를 개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농협, 쌀 소비 촉진 떡 나눔행사

고객에 1천개 백설기·떡·우유 제공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1층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 직원과 고객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 떡을 나누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김석기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서옥원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안종팔 농협전남노조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여해 직원과 고객에게 1,000개의 백설기 떡과 우유를 나눠줬다. 지난 14일 백설기데이도 홍보했다.

떡과 함께 꽃다발을 나눠 주며 어려운 화훼농가를 응원하고 성금 다가온 봄을 느낄 기회도 제공했다.

백설기데이는 사랑을 선물하는 상업적인 데이마케팅 대신 '티 없이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이란 뜻을 가진 우리 민족 고유음식 백설기 떡을 선물하는 날이다.

쌀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우리 쌀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제정했다.

전남농협은 매년 백설기데이를 홍보하기 위해 백설기떡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선정

광주은행은 최근 송중옥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3호 선정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호 선정을 시작으로 이어온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을 선발해 대학 전까지 후원하는 광주은행의 지역인재 육성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소년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우수한 학업성적을 유지하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하는 지역의 미래 인재다. 광주은행은 청소년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옷과 신발을 선물했다.

송중옥 행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중진공 광주본부, FTA 피해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FTA(자유무역협정)체결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중진공은 FTA상대국으로부터 수입품목 내수 유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확

정일로부터 3년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영자금은 6년 이내다.

특히 올해는 기존 경영기술분야 일반 멘토링과 함께 수출전문 멘토링을 신규로 도입해 내수기업의 무역피해극복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사업신청 상담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박선옥 기자

전남매일 전남청년 일자리 캠페인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전남지역 거주(예정)중인
만18세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마을로'란

급여조건
월 180~200만원 + 활동수당 30만원

지원내용
마을리더수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직장 내 조기 적응을 위한 멘토운영

활동지역
전라남도 내 (전라남도 일자리통합보장망 참조)

문의전화
전남테크노파크 : 061) 729 - 2914
녹색에너지연구원 : 061) 331 - 8560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061) 362 - 5205

접수 방법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job.jeonnam.go.kr 접속

일자리지원 - 마을로 -> 참여기업현황 내 참여기업 확인 후 접수 (회원가입 필수)

일자리지원 - 마이페이지 -> MY 현황에서 접수내역 확인